

# 광주여대 양궁 오예진 '3관왕'

### WAA 아시안컵 3차대회 한국 종합우승 “파리 못간 아쉬움 털어내 후련” 광은텐텐양궁단 최미선 금1·은1

광주여대 오예진이 '2024 아시아양궁연맹(WAA) 아시안컵 3차 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광주은행텐텐양궁단 최미선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들의 메달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중 7개를 휩쓴 한국 대표팀은 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양궁 최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리커브 대표팀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지난 8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오예진은 최미선과 접전을 펼친 끝에 6-4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

오예진과 최미선은 임해진(대전시체육회)과 팀을 이룬 단체전 결승에서는 일본을 5-1로 꺾으며 금메달을 합작했고, 혼성 단체전에서는 김하준(사상구청)과 함께 출전해 중국을 5-1로 제압했다. 임해진은 개인전 3위 결정전에서 중국의 주징이를 6-4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오예진은 “국내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지켜 기쁘다”며 “오랜 기간 훈련을 함께 해 온 김성은 감독님, 최미선 선배와 함께 출전해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치르다보니 좋은 결과를 거둔 것 같다. 항상 미선 선배에게 경기 운영이나 컨디션 조절 등 많은 것을 배우려 노력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무엇보다 국가대표선발전에서 4위를 하며 놓친 파리행 아쉬움을 털어내 후련하다. 올림픽 금메달은 활을 잡으며 세운 꿈이기 때문에 다시 쳐



광주여대 오예진(왼쪽부터)과 광주은행텐텐양궁단 김성은 감독, 최미선이 '2024 아시아양궁연맹(WAA) 아시안컵 3차 대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올이라는 자세로 도전을 이어가겠다”며 “최미선 선배와 함께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지난 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남자 대표팀 김하준은 혼성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서민기(현대제철), 정태영(코오롱엑스텐보이즈)과 남자 단체전 팀을 이뤄 일본에 6-0으로 완승하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개인전 결승에서 카자흐스탄 압둘린을 상대로 6-2로 승리하며 세번째 금

메달을 목에 걸었다. 컴파운드 대표팀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심수인·박정운(이상 창원시청), 박예린(서울여고)은 컴파운드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를 234-232로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에서도 심수인과 강동현(현대제철)이 인도를 상대로 157-155로 승리해 금메달을 따냈다.

이어 남자 개인전에서는 이은호(대전체고)가 은

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개인전에서는 박예린이 은메달, 조유주(대구시양궁협회)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단체전에서는 동현(현대제철), 이은호(대전체고), 최은규(울산남구청)가 은메달을 따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18개국, 총 158명의 선수가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3분 넘게 공 찾다가 일 하타오카 '실격'

### LPGA 슛라이트 클래식

일본여자프로골프의 스타 하타오카 나사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슛라이트 클래식에서 공을 찾는 시간을 초과하는 바람에 실격된 뒤 논란이 일고 있다.

LPGA 투어 통산 6승을 올린 하타오카는 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시부 리조트 베이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 앞서 실격을 통보받았다.

이유는 8일 1라운드 경기 때 9번 홀(파5)에서 나온 플레이 때문이다.

1라운드를 10번 홀에서 출발한 하타오카는 마지막 홀인 9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옆 풀스로 날려 보내 공을 찾아야만 했다.

하타오카는 갤러리의 도움까지 받으며 공을 찾아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1벌타를 받은 뒤 경기를 계속해 6언더파 65타로 상위권에서 경기를 마쳤다.

하지만 LPGA 투어는 경기 영상을 살펴본 뒤 공을 찾는 시간을 문제 삼아 하루 뒤에 실격을 통보했다.

LPGA 투어는 하타오카가 공을 찾는데 규정 시간 3분을 넘겼고, 이 때문에 골프 규칙 18.2a를 어겨 1벌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LPGA 투어는 규정 시간을 넘긴 공은 분실 구로 처리돼야 했고, 하타오카는 두 번째 샷을 쳤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골프 규칙 14.7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하타오카는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벌타를 스코어카드에 적지 않고 제출, 결국 스코어카드 오기로 실격됐다.

/연합뉴스

# '대회 4연패' 박민지 '화끈하게 쏘니다'

### KLPGA 셸트리온 상금 2억1600만원 모두 기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사상 첫 '단일 대회 4연패'를 달성한 박민지가 우승 상금을 쾌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지는 9일 강원도 양양 설해원의 더레전드코스(파72)에서 열린 셸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총상금 12억원)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4연패를 할 줄 정말 몰랐다. 부담감을 안고 나선 한 주였는데, 해냈더니 좀 미친 것 같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이날 최종 3라운드까지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우승을 차지한 박민지는 2021년부터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 대회 정상을 지켜 KLPGA 투어 최초의 '단일 대회 4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이뤘다.

'단일 대회 3연패'도 쟁쟁한 선배들이 고(故) 구옥희 전 KLPGA 회장과 박세리, 강수연, 김해림과 함께 보유한 기록이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박민지가 '최초'의 주인공이 됐다.

박민지는 "대회를 앞두고 '4연패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 귀로 다 흘렸다. 올해 안 나오면 우승이 이 대회에서 나올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프로암 때도 정말 못 쳐서 큰 일 났다 싶었다"고 털어놨다.

1, 2라운드 단독 선두를 달리다가 이날 경기 중반 공동 선두를 허용하기도 한 그는 "초반에 기다리며 잘 막자는 생각이었는데 퍼트 감각이 너무나 좋아서 간신히 방어한 것 같다. 심호흡하며 기분을 생각하자고 마음을 다독이며 했더니 마지막엔 잘 풀려서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머리 쪽 신경통으로 고생하며 이번 시즌 초반 휴식을 갖기도 했던 박민지는 약 1년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통산 19승을 이뤘다.

고난을 극복한 박민지의 이번 우승은 '나눔'으로 의미가 더 커졌다.

박민지는 첫날 선두에 오른 뒤 최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은 바랄 수 없지만, 우승 공약이 있다"고 예고했는데, 바로 '기부'였다.

원래 '통산 20승' 공약으로 기부를 생각해왔다는 그는 좋은 일을 빨리하고 싶은 마음과 4연패를 자축하는 의미를 더해 이번 대회 우승 상금 2억1600만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

다만 박민지는 우승 상금보다 많은 3억원이라는 두둑한 특별 포상금을 쟁했다.

/연합뉴스

# 시비옹테크 '테니스 여제' 굳힌다

### 프랑스오픈 우승 '대회 3연패'

### 파리올림픽 금메달 '가장 유력'

이가 시비옹테크(1위·폴란드)가 여자 테니스 최강자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시비옹테크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단식 결승에서 자스민 파올리니(15위·이탈리아)를 2-0(6-2, 6-1)으로 완파,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여자 테니스는 2022년 세리나 윌리엄스(미국)의 은퇴 이후로는 절대 강자가 없는 혼전 시대가 이어졌다.

'포스트 윌리엄스'를 두고 다름만했던 선수는 시비옹테크 외에 오사카 나옴이(134위·일본), 애슐리 바티(은퇴·호주) 정도가 있었다.

오사카는 지난해 출산 이후 코트에 복귀해 올해 프랑스오픈 2회전에서 시비옹테크를 상대로 매치 포인트까지 잡는 등 전성기 시절 기량을 조금씩 회복 중이지만 아직 세계 랭킹이 100위 밖이다.

또 2019년 프랑스오픈, 2021년 윌블던, 2022년 호주오픈을 제패한 바티는 26세였던 2022년에 갑자기 은퇴해 아쉬움을 남겼다.

2001년생 시비옹테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메이저 대회 우승 횟수를 5회로 늘리면서 1990년 이후 태어난 선수 가운데 남녀를 통틀어 가장 먼저 메이저 5승 고지에 올랐다.

여자 단식 현역 선수 중에서는 7번 우승한 1980년생 노장 비너스 윌리엄스(454위·미국)에 이어 시비옹테크의 5회 우승이 두 번째다.

세계 랭킹으로도 시비옹테크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가 지난 8일 끝난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자스민 파올리니(이탈리아)를 2-0으로 제압한 뒤 우승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오른 2022년 4월부터 최근까지 2년 2개월 사이에 시비옹테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딱 2개월만 세계 1위가 아니었다.

나이도 이제 23세로 젊기에 앞으로 세계 랭킹이나 메이저 우승 횟수 관련 각종 신기록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메이저 우승 5회 가운데 4번이 프랑스오픈에 편중됐고, 남은 한 번의 메이저 우승은 하드코트 대회인 2022년 US오픈에서 달성했다.

잔디코트 대회인 윌블던에서는 지난해 8강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 공 스피드가 빨라 랠리가 오래가

지 않는 잔디코트에서는 파워가 뛰어나고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편이다.

우선 7월 말 개막하는 올해 파리올림픽에서도 시비옹테크는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하드코트에서 열린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는 2회전에서 탈락했지만, 이번 프랑스오픈 경기장에서 열린 파리올림픽에서는 시비옹테크를 당해낼 선수가 마땅치 않다.

한편 시비옹테크의 부친 토마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 폴란드 조정 국가대표로 출전해 7위로 메달을 따내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 즐거움

# 문화 산책



## 광주예술의전당

##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에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